

出되었고 이를 檢討하기 爲하여 「光化門復原設計檢討小委員會」를 構成하였다. 委員은 다음과 같다. 鄭寅國, 尹張發, 崔淳雨, 秦弘燮, 申榮勲, 金東賢, 金周泰 諸氏

— 第八卷 第十一號 通卷八十八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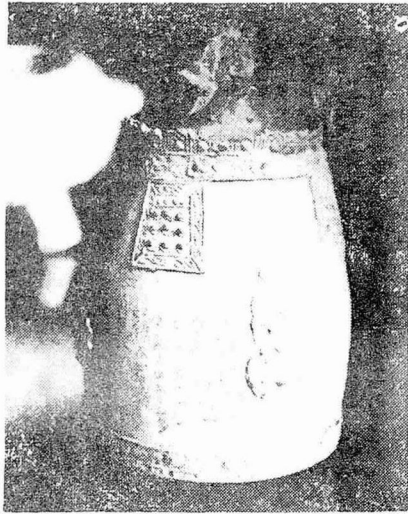
高麗梵鐘의 新例(十二)

黃 壽 永

지난 여름 서울市內에서 一九六六年에 出土되어 民間에 收藏되어 오던 總高一尺未滿의 通形高麗小鐘二口를 조사한 바 있었는데 그 中 하나는 陰刻六行의 銘文과 더불어 形態의 단정함과 彫紋의 優麗함이 특히 주목할 만 하였다.

(1) 戊寅銘 靑銅小鐘

出土地未詳으로 全高二五cm 身高十九cm 下徑十五cm(厚一·五cm) 上徑十一cm 身高에 비하여 胴部의 膨脹度와 鐘口의 크기가 注目된다. 樣式은 上帶(菊花唐草) 下帶(葡萄唐草) 사이에 上帶에서 조금 떨어져서 梯形唐草紋乳廓帶가 네 곳(各九乳)에 等配되었고 乳廓間 鐘腹 네 곳에는 合掌跪坐한 雲上의 天



部像과 重瓣蓮花紋 撞座가 各二座씩 交代하였을 뿐인데 모두 纖細한 彫刻을 보인다. 鐘頂外緣에는 上帶에 連하여 三角蓮花紋立帶가 둘러 있으며 甬筒은 無紋이고 隻龍의 頭部는 乳廓中心線을 向하였는데 바로 이 乳

· 〇cm)가 陰刻되어 있다. 廓下面(長六〇×廣八·〇cm)에 寸음과 같은 七行計四十三橫字(字徑一

公州地後淵院

懸於小鐘同心

造成者言距

慶元大明大寺之等

如願成就之信入

重六斤匠人

朗發戊寅十月日

위의 銘記에서 地名 寺院名 造成者 入重(現重量四·一三斤) 匠人名을 알 수 있는 바 最終行의 戊寅年은 十三世紀로 推定된다. 全面에 고르쳐 淡靑鑄가 덮여 있고 損傷이 하나도 아니 보이는 고려 下代의 優品인 바 특히 纖細한 彫紋과 通式을 따르는 단아한 形態에서 그 收拾을 多幸이라 하겠다(一九六七年六月二十八日調査).

(2) 無銘小鐘

(1)과 同大로서 全高二六cm 身高十九·五cm 下徑十五·二cm(厚一·二cm) 上徑十一cm의 小鐘으로 경기도 驪州附近 出土라고 傳할 뿐이다. 通式으로 四個의 乳廓(各九乳)은 過大하여 그 長廣八cm로서 身高의 約半에 달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上下帶는 모두 唐草紋帶이며 乳廓帶도 同一하다. 鐘體에는 乳廓間 下部에 十六瓣蓮花紋撞座가 二座 對稱으로 배치되고 있을 뿐인데 彫刻의 手法은 거칠다. 鐘頂外緣에는 三角帶가 둘러 있고 甬筒(頂上六珠) 隻龍 또한 鐘身에 비하여 過大한데 鐵鑄가 甚한 것은 鐵製懸索으로 因함이다. 오랜 土中으로 靑鏽가 全面 두껍게 끼워졌으며 下帶는 특히 두껍게 마련되었다. 年代는 高麗下代로 보이는데 頂上의 두 곳에 小孔이 있고 銅片 一個가 貼付되었다. 以上(1)(2) 兩鐘은 모두 서울 車明浩氏의 所藏이다.

〔附記〕 拙稿「高麗梵鐘의 新例(其六)」(本誌 七十八, 一九六六年八月)에서 (二)辛酉寺 小鐘(車明浩氏所藏)을 紹介한 바 있었는데 그 銘文의 最終行「至有三年癸亥」이라 한 것을 「至治三年癸亥」라고 判讀한 것은 이 초를 朝鮮學報 第四十三輯(坪井良平氏·朝鮮鐘의 新資料補遺其四)에 소

개한坪井氏의 慧眼과 東大博 文明大氏의 苦必에 의하였다. 이 至治三年은 一三三三年 高麗 忠肅 五十年에 해당하는 바 紀年小鐘을 確認한 兩氏에게 感謝를 表한다.

陰城 文化洞 五層石塔

——陰城邑內의 佛蹟 其一——

鄭 永 鎬

지난 夏季放學에 檀國大博物館踏查隊가 行한 忠北 槐山地區古蹟調査時 ① 陰城邑內 몇곳에서 佛敎遺蹟을 調査한 바 있기에 그 內容을 紹介하려 한다.

一、文化洞 五層石塔

現在 이 石塔은 秀峯國民學校(文化洞二〇八) 講堂앞에 移建되어 있는데 現地에서 安孝景(同校敎師) 金富年(陰城郡敎育廳) 兩氏의 말에 의하면 本來 이 國民學校 뒷편의 鄕校밭(田)에 있었던 것을 一九五七年 가을에 現位置로 옮긴 것이라 한다. 이 石塔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簡單한 記錄이 ② 있는데 여기에 또 鄕校밭에 있다 하여 原位置는 符合되나 「六層의 石塔으로서 蓮紋을 彫刻하였다」는 말은 實際와 相異한 바로서 誤記임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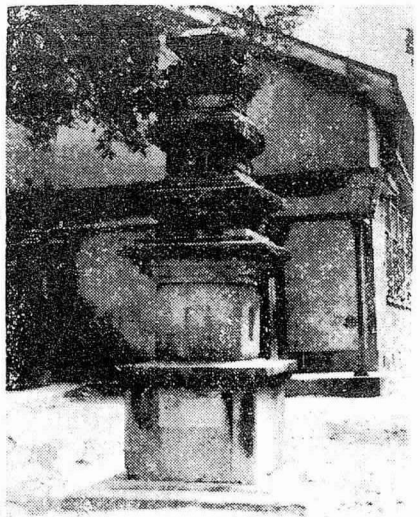
現在 二層과 五層의 屋身이 缺失되었는 바 上記 兩氏의 證言에 依하면 現石塔의 各部材는 移建前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 石塔은 오래前에 倒壞되어 兩屋身이 缺損된 것 같다.

單層基壇인데 二枚石으로 方形의 地臺를 結構하고 上面에 四分圓의 문딩과 角形의 낮은 받침으로 基壇面石을 받고 있다. 基壇은 一枚石인 바 各面에 兩隅柱가 刻出되고 甲石에는 副椽이 整然하며 上面에 一段의 角形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屋身에는 各面 中央에 長方形의 龕室이 陰刻되었는데 그 周邊에

아무런 彫飾이나 痕跡은 없으며 兩隅柱도 없고 各屋身에도 隅柱의 表現은 없다. 屋蓋石은 落水面이 層段을 이루어 塔塔을 模倣하고 있어 注目되었다.

初層屋蓋石은 二枚石으로서 屋蓋받침 三段이 刻出된 一枚石위에 一枚石이 重疊되었는데 落水面의 層段은 三段이다. 二層屋蓋石以上은 모두 一枚石으로 되었는 바 二、三層의 屋蓋받침은 三段式이고 落水面의 層段도 三段式이며 四層은 屋蓋받침이나 落水面層段이 一段인데 五層은 屋蓋받침 二段뿐으로 落水面을 通式의 傾斜를 이루어 層段이 刻出되지 않았고 上面에 一段의 낮은 角形받침과 中心에 擦柱圓孔이 있을 뿐으로 그 위 相輪部는 全無하다.



그런데 以上 諸屋蓋石에서 五層만은 本來 이 石塔의 部材가 아닌 것 같다. 그 理由로는 ① 五層以下의 各屋蓋石 落水面에는 二、三段式의 層段이 있는데 五層만은 없는 相異한 樣式인 點 ② 轉角에 反轉이 顯著한 點 ③ 이 隣近에는 다른 또 하나의 石塔의 部材가 數點 散在해 있는 點(本稿次項에서 紹介될 것인) 등 其他 治石手法이 같지 않은 點인 것이다. 各屋蓋石의 轉角에는 風磬이 달렸던 小孔이 있는데 그 中 四層에는 鐵片까지 남아 있다. 中間의 屋身이 缺失되어 完形은 아니나 各屋蓋의 遮減으로 보아 輕快한 形態라 하겠다. 이러한 類例가 거의 羅代에 建立④ 되었으나 이 石塔은 그 基壇部의 構造와 初層塔身의 龕室等 各部 彫刻手法으로 보아 高麗代로 推定되었다. 實測値는 (cm)

現高三七二 基壇面石高 一〇一·五 甲石一邊厚 一一三·五
幅 一〇一·五 長 一一七·五